

수자원공사 수상 태양광으로 탄소중립 미래 연다



1 충주댐 수상 태양광 2 합천댐 수상 태양광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에 나섰다.

기후 변화 대응은 미래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전 세계가 함께 구체적이고 신속히 행동에 돌입해야 할 공동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지에는 가뭄을 비롯해 홍수, 이상고온, 한파가 생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기후 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인 지구 평균 온도 1.5°C 상승이 20년 내 올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상태다. 이어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지난 10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에서 기후 위

기 앵커국가로서 의지를 담은 세 가지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 감축, 산림복원 협력 강화,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자원공사는 에너지 자립국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물의 가치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해 11월에 기후 위기 경영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에는 ESG 경영도 선포했다. 4월에는 글로벌 RE 100에 공식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의 선두주자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인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난 11월 확정했다. 4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전략별 감축 목표와 목표 이행 기간을 구체화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시설용량 기준)으로서 조직·제도 등 전사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자 본격적인 탄소중립 체제로 돌입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은 수력 1천88MW, 조력 254MW, 태양광 15MW, 풍력 8MW를 합해 1천365MW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2천913G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했는데, 이는 97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온실가스 약 134만t 감축 효과가 있다.

수자원공사는 1973년 소양강댐 수력발전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 조력발전, 소수력발전, 2012년 세계 최초 댐 내 상용화한 수상 태양광, 수열 에너지 등 물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은 탄소중립 기반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지로 도약하고 있다. ⑤

